

다르다 vs 틀리다

서로 같지 않다 · 정답이나 사실과 어긋나다

다르다는 두 대상을 비교해서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, 틀리다는 정답과 견주어 보았을 때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

■ 한눈에 비교

단어	핵심 의미	뉘앙스	자주 쓰는 형태
다르다	서로 같지 않다	형용사. 비교할 두 대상이 필요하며, 옳고 그름의 뜻은 없습니다. 다른 = 딴, 그 밖의.	A와/과 B가 다르다 다른 사람
틀리다	맞지 않다, 잘못 알다	동사. 정답이나 규칙이 있습니다. 과거형으로 자주 씁니다: 틀렸어요.	답이 틀리다 문제를 틀리다

■ 차이점

- 비교 vs 정답 여부.**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은 달라요 (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은 같지 않음)는 비교만 합니다. 답이 틀렸어요 (답이 맞지 않음)는 정답에 견주어 확인합니다. 정답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. 없다면 다르다를 씁니다.
- 틀리는 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.** 많은 한국인이 편한 대화에서 생각이 틀려요를 ‘생각이 서로 같지 않다’는 뜻으로 쓰지만, 이는 틀린 표현으로 봅니다. 글, 시험, 공손한 말에서는: 생각이 달라요 ○ / 생각이 틀려요 ×.
- 형용사 vs 동사.** 다르다는 형용사로 르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: 달라요. 틀리다는 동사로 목적어를 가집니다: 문제를 틀렸어요 (문제를 맞히지 못함) ○ / 문제를 달랐어요 ×.
- 다른은 ‘딴, 그 밖의’라는 뜻입니다.** 명사 앞에서 다른은 흔히 ‘딴, 그 밖의’라는 뜻입니다: 다른 사람 (그 밖의 사람), 다른 색 (딴 색). 틀린은 ‘맞지 않은’이라는 뜻입니다: 틀린 답 (오답).

문장	다르다	틀리다
제 생각은 선생님 생각과 ____.	◎	×
시험에서 두 문제를 ____.	×	◎
쌍둥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____.	◎	×
이 단어는 맞춤법이 _____. 다시 쓰세요.	×	◎
저는 ____ 색 가방을 사고 싶어요.	◎	×

◎ 자연스러움 ○ 가능 △ 어색함 × 틀림

■ 한 걸음 더

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 (서로 똑같다)이며, 같은 틀로 씁니다: A와 B가 같아요.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 (정답이다): 답이 맞아요. ‘나라마다 서로 같지 않다’라고 할 때는 다음과 함께 씁니다: 마다: 나라마다 달라요.

■ 연습 문제

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: 다르다, 틀리다

1. 시험에서 세 문제를 ____.

정답 틀렸어요 — 문제를 맞히지 못함 = 틀리다.

2. 저와 동생은 취미가 ____.

정답 달라요 — 두 사람의 취미를 비교함 = 다르다.

3. 이 문장은 문법이 _____. 고쳐 주세요.

정답 틀렸어요 — 고쳐야 하는 문법은 ‘다른’ 것이 아니라 ‘틀린’ 것입니다.

4. 나라마다 문화가 ____.

정답 달라요 — 문화는 서로 같지 않을 뿐 틀린 것은 없습니다.

5. 이 색은 마음에 안 들어요. ____ 색은 없어요?

정답 다른 — ‘딴, 그 밖의’는 다른입니다.

■ 예문

1.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비슷하지만 발음은 달라요.

2. 저는 언니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.

3.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.

4. 어제 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렸어요.

5. 이 문장은 문법이 틀렸어요.

6. 제 답이 틀렸어요? 다시 계산해 볼게요.

■ 자주 하는 실수

× 저는 형하고 성격이 틀려요.

○ 저는 형하고 성격이 달라요.

성격은 ‘틀릴’ 수 없으므로, 두 대상 사이의 차이는 다르다를 씁니다(편한 대화에서 틀리다를 쓰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잘못된 표현으로 봅니다).

× 시험에서 세 문제를 달랐어요.

○ 시험에서 세 문제를 틀렸어요.

‘문제를 맞히지 못했다’는 문제를 틀리다이며, 다르다는 형용사라서 목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.

× 맞춤법이 달라요. 다시 쓰세요.

○ 맞춤법이 틀렸어요. 다시 쓰세요.

맞춤법은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이므로 틀리다를 씁니다. ‘옳지 않다’는 뜻으로 다르다를 고르는 실수가 있습니다.